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6



▶ 27회 예고
아쇼까는 진압군의 숙영지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우빠굽따를 불러 공양을 올린다. 어젯밤에 설법을 들었던 대가였다. 아쇼까는 다시 우빠굽따로부터 마간디야 왕비의 과보 이야기와 고시따라마 사원에 얽힌 붓다의 일화를 듣는다.

마간디야, 사마왓띠를 괴롭히다

사마왓띠는 밋따의 도움으로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 그런 뒤 며칠이 지난 뒤부터 사마왓띠는 구휼소로 나가 양아버지 밋따를 도왔다. 사마왓띠는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빈민들끼리 서로 먼저 배급받으려고 싸움질하던 것을 단번에 해결했다. 구휼소에 울타리를 만든 뒤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 한 사람씩 배급음식을 받아가게 했던 것이다. 이를 본 재정관 고사카는 밋따를 불러 칭찬했다.

"고생이 많소. 이제는 먼저 타려고 싸우는 빈민이 없어졌구려. 능력이 탁월한 밋따에게 이 일을 맡기기를 잘한 것 같소."

그러자 밋따는 자신이 구상한 것이 아니라 밧다와띠야의 외동딸 사마왓띠의 공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고사카는 사마왓띠가 친구 밧다와디야의 딸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결국 고사카는 밋따에게 양해를 구한 뒤 사마왓띠를 자신의 양녀로 삼았다. 고사카는 사마왓띠가 자신의 딸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하녀 5백 명을 주어 시중들도록 했다.

"사마왓띠를 양녀 삼은 고사카 부부는 행복했지요. 사마왓띠가 무슨 일이든 지혜롭게 처리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꼬삼비에 축제가 열렸다. 꼬삼비 성민들이 모두 야무나강으로 나가 축제를 즐겼다. 사마왓띠도 하녀 5백 명을 데리고 야무나강으로 나가 강물에 몸을 적시며 소원을 빌고 기도했다. 왕위에 오른 우데나왕도 야무나강 강변에 있는 별궁에서 성대한 축제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강물에 몸을 적시고 나온 사마왓띠가 우데나왕의 눈에 띄었다. 우데나왕은 사마왓띠의 조신한 행동과 시녀들을 동생같이 대하는 모습에 반했다. 우데나왕은 제관 대신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이윽고 그녀가 재정관 고사카의 양녀임을 알고 고사카를 불러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고사카는 간곡하게 거절했다.

"왕이시여, 만약 제가 사마왓띠를 왕궁에 보낸다면 성민들이 출세를 위해 딸을 이용했다고 할 것이옵니다. 저는 사마왓띠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사옵니다."

우데나왕은 고사카의 대답을 듣고 나서 분노했다. 즉시 재정관 직책을 박탈한 뒤 군사를 보내 고사카의 재산을 몰수하고 하인 모두를 빼앗았다. 고사카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신세가 돼버렸다. 이를 알게 된 사마왓띠는 스스로 궁궐로 가서 우데나왕을 찾았다. 하녀 5백 명도 사마왓띠를 따랐다. 하녀 5백 명 중에는 꼽추시녀 꾸줏따라도 있었다. 우데나왕은 사마왓띠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크게 기뻐하며 화려한 의식을 치른 뒤 첫 번째 왕비로 삼았다. 사마왓띠 덕분에 고사카는 재정관으로 다시 복귀했고, 잃었던 집과 재산도 되돌려 받았다.

그 무렵, 붓다는 아난다와 함께 꼬삼비에 와서 머물렀다. 붓다의 설법을 꼽추시녀 꾸줏따라가 듣고 와서 사마왓띠에게 그대로 전했다. 꾸줏따라는 기억력이 뛰어났다. 붓다의 설법을 단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았다. 붓다도 '내 설법을 들었던 이들 가운데서 꾸줏따라가 으뜸이다.' 라고 할 정도였다. 사마왓띠는 붓다의 설법에 매료돼 꾸줏따라를 날마다 붓다에게 보냈다. 5백 명의 하녀들도 차츰 꾸줏따라가 전하는 붓다의 가르침에 마음의 눈을 떴다.

"그렇다면 마간디야 왕비는 어떤 사람이었소?"

"부왕이시여, 지금 막 마간디야 왕비를 이야기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마간디야는 꼬삼비에서 미모가 가장 빼어났다. 청년들이 그녀를 보면 정신을 잃곤 했다. 마간디야를 짝사랑하여 미쳐버린 브라흐민 청년도 있었다. 마간디야의 미모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도 유명해졌다. 그는 마간디야의 자존심을 한껏 부추겼다. 그러던 중에 그는 길에서 붓다를 우연히 보았는데, 붓다는 거룩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형이었다. 그는 드디어 딸의 배필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가서 붓다에게 사위가 돼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붓다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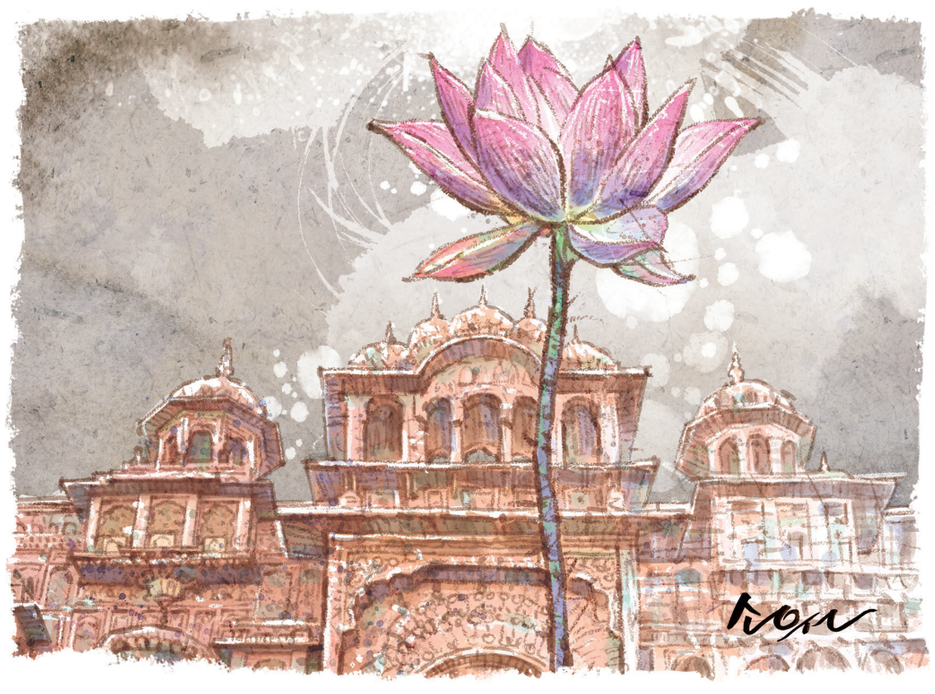
"갈망과 집착,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에도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오. 하물며 더러운 피고름과 똥오줌으로 가득한 육체인데 무엇이 아름답다는 말이오?"

마간디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붓다가 설한 무상(無常)의 가르침을 곧 알아들었다. 젊은 시절 팽팽했던 얼굴은 어느 새 주름살이 접혔고, 검은 머리카락은 흰 머리카락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팔다리의 피부도 부드럽고 매끄러웠는데 지금은 마른 망고처럼 쭈글쭈글했다. 마간디야의 부모는 붓다의 설법에 고개를 숙였다. 세속의 아름다움이란 한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그녀의 부모는 붓다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했다. 마음속으로는 부부가 서로 약속한 듯 이미 붓다의 제자가 돼버렸다. 이제 출가는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그러나 마간디야는 결혼을 거절당한 데다 자신의 미모에 피고름과 똥오줌을 바른 것 같다는 붓다의 설법에 화를 잔뜩 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출가하겠다고 말하자 붓다에게 부모까지 빼앗긴 것 같아 증오심이 솟구쳤다. 한 자리에서 똑같이 무상의 설법을 들었지만 부모와 마간디야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마간디야는 무상을 깨닫기는커녕 심한 모욕을 받았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쇼까는 보름달을 바라볼 뿐 말없이 우빠굽따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아쇼까의 급한 성격 때문에 지루했으면 진즉 중지시켰을 터였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흥미롭게 듣고 있음이 분명했다. 우빠굽따는 가끔 고개를 돌려 이쇼까의 표정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쇼까의 반응을 확인하고는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과연 그의 기억력과 언변은 따를 자가 없었다. 우빠굽따는 이야기 중간 중간에 추임새를 넣듯 강조하곤 했다.

"마간디야는 부모님이 다 출가하자 숙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숙부는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우데나왕은 마간디야의 숙부를 불러 그녀가 궁궐에 들어와 살 것을 청했다. 마간디야의 미모를 좀 더 자주 보기 위해서였다. 숙부와 마간디야는 우데나왕의 청을 들어주었고, 숙부는 높은 지위와 재산을 하사받았다. 그녀 역시 우데나왕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마간디야의 행복은 거기까지였다. 갑자기 우데나왕이 사마왓띠를 첫째 왕비로 삼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왕비가 된 마간디야는 화를 참지 못했다. 사마왓띠가 첫째 왕비 자리를 가로챈 양 질투심으로 부들부들 떨었다. 꼽추시녀 꾸줏따라가 붓다의 설법을 사마왓띠에게 전해주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마간디야는 심복시녀를 시켜 건달들을 매수했다. 돈을 받은 건달들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붓다와 제자들이 꼬삼비 거리로 탁발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악담을 퍼붓게 했다. 건달들은 거리에 숨어 있다가 탁발 나온 붓다와 제자들을 뒤쫓아 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붓다와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자 돌을 던지고 오물을 뿌렸다. 어떤 건달은 가까이 다가가서 침을 뱉기도 했다.

우빠굽따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감정이 격해져 말했다.

"부왕이시여,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님을 괴롭힌 불량배들은 반드시 아비치(阿鼻地獄)에 떨어져 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아비치란 어떤 곳이오?"

"땅속 2만 유순인 깊이에 있는 지옥입니다."

"무슨 벌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소."

"괴로움을 받는 일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이 없다 하여 아비치라 하며 무간지옥(無間地獄)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에게는 필파라침(必波羅鍼)이라는 악풍(惡風)이 있는데 온몸을 건조시키고 피를 말려 버립니다. 또 옥졸이 몸을 붙잡고 가죽을 벗기며, 그 벗겨낸 가죽으로 죄인의 몸을 묶어 불수레에 싣고 훨훨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에 던져 넣어 몸을 태우고, 야차(夜叉)들이 큰 쇠창을 달구어 죄인의 몸을 꿰거나 입, 코, 배 등을 꿰어 공중에 던진다고 합니다. 또는 쇠매(鐵鷹)가 죄인의 눈을 파먹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죄인이 가는 것이오?"

"5역죄(五逆罪)를 범한 자입니다. 인과(因果)를 무시하는 자, 절이나 사찰의 탑을 부수는 자, 성중(聖衆)을 비방하는 자, 시주받은 물건을 사사로운 용도로 낭비하는 자, 아라한을 살해하는 자, 비구니를 강간한 자 등입니다."

오역죄란 아버지를 죽이는 죄, 어머니를 죽이는 죄, 아라한을 죽이는 죄,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 붓다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죄 등 다섯 가지의 죄를 뜻했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지극히 악한 행위이므로 오무간업(五無間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마간디야의 악행을 계속 이야기해 보시오."

"부왕이시여, 소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니 신심이 납니다."

우빠굽따는 다시 악행의 왕비 마간디야 이야기로 돌아갔다. 건달들의 행패와 폭력에 탁발을 포기하고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돌아가 버리는 붓다의 제자도 생겼다. 어떤 제자들은 건달들이 두려워 사원 밖으로 탁발 나가지 않고 아예 굶기도 했다. 마침내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며 붓다에게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꼬삼비를 떠나셔야 합니다. 라자가하(왕사성)나 스라바스티(사위성)로 가셔야 합니다."

"라자가하나 스라바스티로 가면 이런 일은 없겠지. 하지만 아난다여, 눈물을 거두거라. 눈물 대신 자비와 인욕의 마음을 내거라."

붓다는 아난다의 간청을 타이르듯 물리쳤다.

"수행자는 소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떠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느니라. 소란이 가라앉도록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 소란이 사라진 뒤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도 늦지 않느니라. 지금은 저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을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때이니라."

붓다의 설법을 들은 아난다와 제자들은 건달들의 무례한 행동을 견디며 탁발을 계속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건달들의 행동에 변화가 왔다. 건달들은 하나 둘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꼬삼비 성민들은 붓다와 제자들을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간디야의 복수는 여지없이 일주일 만에 무너져버린 셈이었다.

그러자 마간디야는 분노하는 마음을 또 다시 사마왓띠에게 돌렸다. 사마왓띠에게 첫째 왕비 자리를 뺏긴 것도 억울했지만 사마왓띠 왕비가 꼽추시녀 꾸줏따라를 통해 붓다의 제자가 된 것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간디야는 사마왓띠를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했다. 우데나왕에게 사마왓띠를 비방하고 험담했다. 그러나 사마왓띠는 침묵으로 자신의 결백을 드러냈고 마간디야를 미워하지 않았다. 우데나왕은 그런 사마왓띠의 자애로운 태도를 칭찬했다. 사마왓띠는 괴로울 때마다 꼽추시녀 꾸줏따라가 전하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위로받았다.

자신을 다스리고
언제나 자제하며 사는 이,
자신을 이기는 이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보다 낫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이고
자신이 자신의 안내자이다.
상인이 훌륭한 말을 다루듯,
그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사마왓띠는 마간디야가 온갖 험담과 거짓말로 비난해도 반석처럼 꿈쩍하지 않았다.〈계속〉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망 찾아 한국 온 몽골 소년에
부처님 가피 닿길

스님이 아이 이름 지어줄 정도로 불심 깊은 몽골출신 다와씨
아들 척추암이지만 수술 불가능해 한국행…혈액암도 발병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